

# “북녘 가족 얼굴 맞대고 한가위 쇠는 게 평생 소원”

## 70여년 ‘비대면 추석’ 보낸 광주지역 실향민들의 바람

“얼굴 맞대고 추석 명절 한번 지내보는 게 평생 소원이예요.”

흠뻑 젖은 가족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수확에 감사하고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 민족대명절인 추석, 이튿날 들어도 넉넉해지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달라가는 것이 추석 귀향길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다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으로 민족대명절 대신 온라인·비대면 추석으로 변모했다. 올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한 부모님을 추석에까지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70년 가까이 가족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생사 확인도 하지 못한 채 강제로(?) 비대면 추석을 지내온 사람들이 있다. 실향민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나마 광주지역 실향민들은 광주시 북구 ‘광향의 동산’에서 매년 합동 망향제를 지내며, 비슷한 아픔을 지닌 동향 사람들끼리 모여 그리움을 달래왔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고령의 실향민들이 코로나19 감염위험 때문에 고심 끝에 망향제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비대면으로 70년간 버텨온 실향민들은 올해 추석에는 고향에 두고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홀로 견뎌내야 한다.

또 실향민들은 최근 연평도에서 발생한 서해 어업단 실종사건과 관련해 혹시라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노심조사를 하고 있다.

## “대동강서 놀던 기억 생생... 고향땅 밟아봤으면”

### 인민군 입대 싫어 월남한 명상엽 할아버지

“어린시절 고향땅 대동강을 건너 다니며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죽기전에 고향땅을 한번 밟아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명상엽(90·광주시 서구 양동) 할아버지는 “이제는 정말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며 “죽기 전에 북한에 있는 동생들(4명)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평안남도 대동군 용연면 맹종리 424번지라는 고향집 주소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 고향에서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평안남도 여포국민학교와 여포중학교를 졸업했다. 고교 진학하기 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당시 군에 입대해야 할 나이였던 그는 인민군에는 입대하기가 싫어 첫째형과 대한민국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1950년 12월 5일 할아버지는 전쟁당시 행방불명된 둘째 형(명인엽·93)을 빼고, 첫째 형(명정엽·96)과 친구들 8명이 함께 걸어서 김포까지 내려왔다.

12월 27일 김포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첫째형과 한국군에 자원입대했고 첫째형은 5사단으로 명할 아버지는 8사단으로 배치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첫째형과의 마지막이었다. 이후 첫째형은 한국전쟁 행방자로 현재까지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다.

명 할아버지는 “고향을 떠나오면서 70년 동안 동생 생사조차 모르고 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죽기전에 고향땅에 묻혔을 부모님 산소에 성묘도 하고, 이북에 남겨둔 동생들 명복엽(여·87)·승엽(84)·태엽(81)·춘엽(여·78)이를 한번이라도 보고싶다”고 말했다.



명상엽 할아버지가 집앞에 있는 국가유공자명패와 자신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다.

그는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명 할아버지는 언젠가는 동생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위암으로 위를 전부 들어내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건강을 유지하면서 동생들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연평도에서 최근 발생한 서해어업단 공무원 실종 사건에 대해 명할아버지는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눠야 하는 사실이 또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빨리 원만히 해결돼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북에 있는 어머니 산소 성묘 드리고 눈 감고 싶어”

### 1·4후퇴 때 내려온 박영숙 할머니

“북에 있는 남동생을 만나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서 성묘를 드리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28일 만난 박영숙(84·광주시 남구 봉선동) 할머니는 2007년 금강산 관광 때 찍은 사진을 놓지 못했다. 사진은 40여 명의 실향민들이 금강산 입구에서 찍은 것이었다.

할머니는 “남편을 포함해 사진 속 실향민 절반 이상이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뒀다”면서 “한번이라도 고향땅을 밟아 봤으면 좋겠다”고 흐느꼈다. 또 박 할머니는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69년 전 고향에서 헤어져 어머니와 남동생이 생각난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결혼 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이북의 남겨진 어머니의 제사상을 차렸다고 한다. 한 번이라도 산소 앞에서 직접 성묘를 드리고 싶다는 게 박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북청물장수’로 잘 알려진 함경남도 북청군 양하면이다. 박 할머니 집안은 과수원과 선박까지 운영하는 등 부유했다.

1951년 1·4 후퇴 당시 15살이던 박 할머니는 중공군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에 아버지와 오빠의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올랐다.

박 할머니는 집을 지키기 위해 고향에 남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일주일만 있다 다시 올라올게요”라는 말을 하고 떠났다. 이것이 박 할머니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손을 놓은 이후 북청에서 100명 남짓이 겨우 탈수 있는 묵선(뚝단배)을 타고 피난길에 올라 한 달만에 포항 구룡포에 도착했다.



실향민 박영숙 할머니가 지난 2007년 금강산을 다녀왔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있다.

박 할머니는 매년 추석 제사상을 차리면서 이북에 있는 가족들 뒤편까지 꼭 챙기고 있지만, 남동생은 살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거르지 않고 있다.

박 할머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10년 전에 정부를 통해 들었다”면서 “아직까지 동생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해 대기중인 광주·전남 이산가족 수는 모두 1215명(광주 488명·전남 727명)이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웃놀이 너무 신나요” 28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문화체험행사 웃놀이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 죽산보 해체·승촌보 상시개방 최종 의결 환경부, 다음달 초 국가물관리위원회 제출

죽산보를 해체기로 지역사회의 최종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승촌보는 개방 시기조차 막연한데다, ‘갈수기 물 이용장애가 없도록 보(水)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상시개방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말 뿐인 상시개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는 이날 오후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회의 열고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이라는 단일안을 최종 의결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단일안을 다음달 초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과 다른 지역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에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지역사회 인박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처리방안을

최종 확정하는데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지역 환경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의견을 대표하는 점을 들어 이날 채택된 단일안과 같은 처리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지난해 승촌보에 대한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라는 방안을 내놓은 점도 향후 처리방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위원회측은 승촌보의 경우 ‘갈수기에 물 이용장애가 없도록 보를 운영하고 양수장, 지하수 등 물 이용대책을 조속히 추진한 뒤’ 상시개방을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승촌보 상시개방 전 물이용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개방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 보 운영 형태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민 시선을 의식, 선언적 의미의 상시개방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물건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